

해마다 끊이지 않는 농산물 절도...검거율은 ‘바닥’

전남광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절도 피해액이 2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절도 건수도 280건에 달했으나, 광주의 검거율은 40%대 머무르는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모두 22억2천29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1억2천6만원으로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했고, 광주에서는 1억284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의 연도별 피해액은 2023년 8억4천101만원, 2024년 9억6천143만원, 2025년 3억1천762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같은 기간 2023년 4천615만원, 2024년 3천826만원, 2025년 1천843만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절도 피해액과 달리 농산물 절도 사건은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광주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모두 280건으로, 전남은 202년 70건, 2023년 48건, 2024년 65건, 2025년 53건 등

전남광주 피해액 3년간 22억 넘어

도난 피해건수 최근 4년 280건

광주 검거율 41%...작년 29%

특별단속 전무...“방법 대책 시급”

4년간 236건이 발생했다. 검거율은 58.9%였다.

광주는 같은 기간 44건이 발생해 18건이 검거되는 등 40.9%의 검거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인 48.6%를 밑돌았다.

특히 광주의 농산물 절도 발생 건수는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40% 증가한 가운데, 검거 건수 또한 4건에 그치는 등 28.6%라는 낮은 검거율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절도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전국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288억5천198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피해액은 153억9천570만원으로 전년 67억3천23만원보다 약 2.3배 늘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경찰청이 주관한 전국 단위 농수산물 절도 특별단속은 한 차례도 실시되

지 않았으며, 전남경찰청 등 일부 경찰청만 수확철 자체 단속을 벌이는데 그쳤다.

실제 전남경찰청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농축산물 절도 단속을 강화해 8건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8건을 검거했다.

박정현 의원은 “낮은 검거율 속에서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축산·임산물까지 농어민의 생계 수단 전체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넓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범죄 입증과 검거가 어려운 만큼 수확철과 농번기 맞춤형 순찰 강화, 전국 단위 특별단속, CCTV 등 방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발포 명령 거부’ 안병하 치안감 38주기 추모

5·18 당시 시민 지킨 희생 기려

유족·시민사회 등 100여명 참석

특별강연서 오월 당시 행적 조망

유족 “민주경찰 역사 기억해달라”

신군부의 발포 명령에 맞서 시민을 지켰던 ‘민주경찰’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38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지난 10일 오후 3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제38주기 민주경찰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이 개최됐다.

추모식은 안병하기념사업회와 한국경찰유족회, 안병하인권학교, 김사복추모사업회, 전남경찰직장협의회, 경찰청공무직노동조합의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유족과 현직 경찰,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안 치안감은 지난 1979년 2월 전남도경찰국장으로 부임해 이듬해 5·18 당시 강경 진압과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부상 시민들을 도왔다.

1980년 5월26일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보안사 동빙고 분실에서 8일간 고문을 당했으며, 후유증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10일 숨졌다. 2017년에는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됐다.

고인의 셋째 아들인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는 “1980년 5월에는 안병하 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다”며 “당시 광주에는 2천명에 가까운 경찰이 있었고, 이들은 경찰의 명예와 본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했다.

김법태 김재규장군명예회복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신군부의 폭압보다 시민의 생명을, 자신의安危보다 공직자의 양심을 먼저 생각했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며 “부당한 권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며 시민을 지켰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38주기 추모식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개최됐다. /이연상 기자

력에 맞섰던 고인의 용기를 이어받아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재의 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은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왜곡과 진실”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그는 지난 8월13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포럼에서 나온 ‘안 치안감이 5월18일 연락 두절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경찰 상황일지에 안 치안감이 오전 11시부터 시위 대응 지시를 내린 기록이 남아있었다”며 “최초 군 병력 지원 요청도

5월18일이 아닌 이튿날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법원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허위 주장을 한 것과 동일한 방식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모식은 유족과 시민 등 참석자들의 헌화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신군부의 부당한 명령에 맞서 시민의 생명을 지켰던 고인의 희생을 기리며, 시민을 위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겼다. /이연상 기자

나주서 금품 노리고 60대 부부 살해한 50대 구속

피해자 카드서 600만원 인출

범행 전 수차례 현장 답사 실시

계획범죄...강도살인 혐의 적용

금품을 노리고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52)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A씨는 “계획 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금품을 노린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는 길에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부부는 6일 오후 7시40분께 주택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들의 손과 발은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묶여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오락실에서 피해자 부부 중 남편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피해 부부의 주택 주변을 여러 차례 오가며 사전 답사한 정황과 범행 수법, 범행 후 금품 인출 등을 근거로 A씨가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 갔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 개최도 검토 중이다. /오지현 기자

아파트 외벽 도색하던 70대 추락해 숨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가 추락해 숨졌다.

11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께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에서 A(70대)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9시46분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파트 외벽 도색 작업 중 안전줄을

아래로 내리는 과정에서 신체의 무게중심이 아래로 쏠려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형우 기자



AI가 광주매일신문을
똑똑하게 읽어줍니다.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